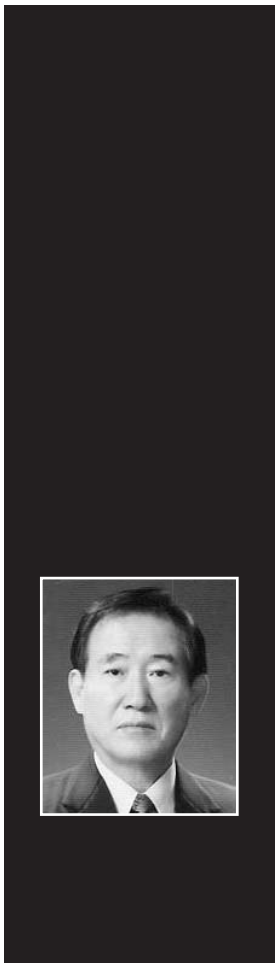




환경문제와 물류

Environmental matter and Logistics



우리나라의 물류는 현재 첫째, 고코스트의 해결, 둘째 글로벌화, 셋째 전문가의 육성이라는 커다란 과제에 추가해서 환경문제의 조기대응이 긴박해지고 있다.

물류활동은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 바다의 오염, 자원고갈(이상 전세계(지구)적인 문제) 또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약취, 교통사고, 폐기물(이상은 지역적 규모의 문제)라는 대단히 여러 갈래에 걸쳐서 환경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또 일본의 아보·에이지(阿保榮司) 전 와세다대 교수는 「물류의 단계적 발전론」(1998)에서 물자공급의 매니지먼트는 제1단계 물류의 시작, 제2단계는 비즈니스·로지스틱스를 거쳐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이르기까지 비연속적으로 단계적인 발전과 진화를 하여왔다고 전하고 있다. 여기에서 아보교수는 제4단계로서 앞으로 그린·로지스틱스로 발전과 진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종래의 효율 제일주의, 코스트 제일주의에서 새로운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물류를 개선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제3단계에서 제4단계로의 옮기는 것은 가치체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실천사례가 지금까지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물류활동에 주요시하여야 할 사항은 정맥(靜脈)물류의 증대이다.

이제까지의 물류는 혈액의 흐름을 예로 한다면 동맥(動脈)에 상당하다. “제품을 운반하면 끝이다”가 아니라 계속되어 앞으로

는 정맥부분이 중요하게 된다. 인체와 같이 노폐물(老廢物)을 회수해서 재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폐기제품·반품의 회수되는 물류는 정맥이 아니다. 많은 식품 메이커들이 현재 공파렛트 공동회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정맥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운반용기도 중간자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물류활동에 있어서 용기포장 리사이클 등에 의한 폐기물류의 규제강화, 폐가전기, 폐차 등의 회수의무 폐기물을 유용한 재화로의 변형하는 리사이클을 위한 정맥물류의 촉진이다. 여기에 더하여 급해진 것이 자동차 교통량의 증대에 의한 도로가 정체, 배기가스 등의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이다.

오늘의 이와 같은 심각한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원인은 효율지상주의 시장경제가 너무 환경을 배려치 않고 여기에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를 내부화하지 않고 방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러한 것은 방지할 수 없다. 기업도 소비자도 환경 코스트를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외부 불경제의 증대는 환경대책비, 교통대책비 등의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켜 그것은 또 사적비용 증대로 파급해 갈 것이다. 이와 같이 외부 불경제는 최종적으로는 개개인 개개의 기업에 돌아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규제의 강화와 사회적 비용이 증대될 것이다.

환경규제 강화의 관점으로는 도로의 정체나 배기가스 등 교통공해의 대책상 지금부터는 차량이 도로를 어디나 자유로이 통행한다는 것은 허용 안 될 경향이다. 「혼잡세」가 징수되고 또 디젤차량의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또

폐기물 대책으로는 포장·용기회수의 의무이고 환경기준의 강화도 세계적인 추세이다. 규제완화가 일방적인 면에서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규제는 거꾸로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비용도 증대될 것이다. 환경대책비, 교통대책비 등의 「사회적 비용」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이 「개별적 비용」으로 파급될 것으로 생각된다. 코스트 부담이 우리 신변의 개개 기업에 뿌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의미에서도 자유로운 기업활동으로서의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트럭업자 등은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기업은 환경을 배려한 상품공급은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기업내부에서 처리하여 가능한한 재이용한다. 소비자도 상품품질에 환경을 가미해서 선정한다는 행동이 요구되어 올 것으로 생각한다.

요컨대 21세기는 환경배려 시장경제에의 이행이 요구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물류분야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일각의 유예도 허할 수 없는 벼랑에서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물류시스템이 기업시스템의 일부로서 물류시스템이 있고, 사회시스템으로서의 물류시스템이 있는 그 본질은 똑같은 것이다.

「물류의 본질이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발판으로 현재 도입되고 있는 것처럼 응집한 대응이 아니고 시스템의 일부로서 환경대응 기능을 내장시켜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이 불가결한 것이다. 환경적합화의 어프로치는 시스템즈 어프로치를 두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명기하여야 할 것이다. ☐